

‘사형 구형’ 윤석열 2월 1심 선고 관심

설연휴 직후 19일 오후 3시 선고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
'공수처 체포 방해' 1심 내일 열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관련기사 7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7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명태군 여론조사 무상 수상' 재판은 오는 27일, '재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장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명 대통령(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근 전 제2야전군사령부 현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7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명태군 여론조사 무상 수상' 재판은 오는 27일, '재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시도교육청 ‘통합 추진’ 합의

4개 기관, 2월 특별법 통과 목표

행정·교육 통합 광역정부 합의

교육청까지 합류 행정통합 급물살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련기사 2·3면>

4개 기관은 오는 2월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행정과 교육을 아우른 통합 광역정부를 출범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끌자로 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행정통합 논의에 시·도 교육청까지 공식 합류했다는 점에서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4명의 단체장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통합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담겼다.

우선 4자 협의체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와 협력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청회를 연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교육 자치'와 '기초지자체 권한'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체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전남 기초지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에 참석한 이정선(왼쪽부터)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체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고, 통합과정에 교육 자체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로 명시했다.

공직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인사 원칙'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 제5항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4자 협의체는 통합 이후의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조직 개편,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 등 '광주전남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인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교育청의 합류로 천군만마를 얻은 만큼 행정·교육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과 김대중 도교육감 역시 "인사 등에서 교육 가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농어촌 학교 특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호남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몬·빨간펜 960만 정보 뚫렸나

교원그룹 서버 600대 '해킹사고' 영향권 ... 불안감 확산

8개 이상의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영향받는 이용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96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사단은 공격자 IP를 차단하고 악성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공격에는 통신사 해킹에도 사용됐던 '웹쉘' 악성코드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백업 서버에서는 감염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외부 유출 정황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즉시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종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4MATIC · 배기량: 2989, 공차중량: 2145, 자동9단, 복합연비: 13.0(도심연비: 11.3, 고속도로연비: 15.9), 등급: 3, 복합CO2 배출량: 148
· S 450 4MATIC · 배기량: 2998, 공차중량: 2090, 자동9단, 복합연비: 10.0(도심연비: 8.8, 고속도로연비: 12.1), 등급: 4, 복합CO2 배출량: 171
· S 450 4MATIC L · 배기량: 2998, 공차중량: 2065, 자동9단, 복합연비: 9.9(도심연비: 8.6, 고속도로연비: 12.1), 등급: 4, 복합CO2 배출량: 172
· S 500 4MATIC · 배기량: 2998, 공차중량: 2105, 자동9단, 복합연비: 9.7(도심연비: 8.4, 고속도로연비: 11.7), 등급: 4, 복합CO2 배출량: 177
· S 580 4MATIC · 배기량: 3982, 공차중량: 2150, 자동9단, 복합연비: 8.6(도심연비: 7.3, 고속도로연비: 10.9), 등급: 5, 복합CO2 배출량: 20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